대덕밸리연합회 소식

VENTURE

송도 IT특구 조성에 대덕밸리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천 송도 신도시를 '동북아 IT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덕밸리 벤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백종태)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수위의 송도 IT특구 조성계획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벤처연합회는 "황무지와 다름없는 송도에 새롭게 연구소를 세우고 인프라를 처음부터 조성한다는 것은 투자측면에서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며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관련 "현재 각종 조사에서 최고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연합회는 "수도권인 송도 지역에 대한 IT특구 구상은 지방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돼 또다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벤처연합회는 "인수위의 송도 IT특구 구상은 투자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이란 당선자의 철학과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제업무 중심지로 개발하려던 송도 신도시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IT 중심의 동북아 연구개발 중심지역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삼성과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의 주요 연구개발시설과 서울공대 및 미국 카네기멜론대 등 국내외 유수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타이타닉'의 카메룬, 대덕밸리 入城에 관심 집중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 제임스 카메룬이 대전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 대덕밸리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달 26일 1박3일 일정으로 카메룬 감독을 만나기 위해 극비리에 미국 LA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는 "카메룬 영화사 측에서 다음달 대전을 방문해 디지털 스튜디오 적지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고 방문 결과를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에 카메룬 측 영화사가 디지털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가진바 있다"면서 "제임스 카메룬의 동생으로 영화사 CEO인 존 카메룬이 2월 중 대전을 방문해 대덕연구단지와 과학공원, 대전시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자세한 협상 내용이나 과정은 영화사와의 합의에 의해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그쪽(영화사)에서 관심을 두는 분야는 디지털 스튜디오와 디지털 스쿨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분야"라고 말했다. 업계와 대전시는 이번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카메룬 감독의 디지털 스튜디오가 대덕밸리에 유치되면 대전은 과학공원 활성화는 물론 문화산업 분야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덕 신제품/신기술 ■

에스아이, SW방식 쌍방향 원격강의 시스템 개발

대덕밸리 벤처기업 에스아이(대표 신웅호)는 지난 9일 화상과 음성, 이미지, 판서, 채팅 등의 정보를 실시간 양방향으로 공유할 수 있어 동일장소에서 회의하는 효과를 낼수 있는 다자간 원격 교육 솔루션을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생이 PC 모니터와 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학생과 강의를 하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등 하나의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 같은 효과를 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신 대표는 "현재까지 오프라인 교육이 원격 교육으로 이전되고 있으나 기존의 솔루션 시스템 가격이 고가이다보니 폭넓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곳에서 강의를 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42-360-3000)